

韓國節食의 施行實態에 關한 地域別 比較研究

— 강릉, 대구, 대전,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

金香希 · 黃春仙

曉星女子大學校 家庭管理學科

(1991년 2월 26일 접수)

A Comparative Study on Regional Observing State of Korean Holiday's Traditional Festive Foods (Centering Around KANGREUNG, DAEJEON, JEONJU and DAEGU Regions)

Kim Hyang Hee, Hwang Choon Sun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Hyeongsung Women's University

(Received February 26, 1991)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search on the observing state of Korean traditional holidays and the traditional foods related to those days through the questionnaires completed by 578 housewives who live in Kangreung, Daejeon, Jeonju, and Daegu area. For data processing, SAS program was employed, and all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and χ^2 -squa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n observing the traditional holidays, more than 90% of housewives who answered the inquiry keep up SEOLNAL, DAEBOREUM, and CHUSEOK, without regarding regions. There are larger number of people who keep up IPCHUN, JUNGWHAJEAL, and DANOH in Kangreung and SAMBOK in Daegu than that of other regions ($p < .001$).

Compared to general circumstances, CHOPAIL is more commonly celebrated by older class as well as lower educated class ($p < .001$). Also, the consequence shows that Buddhists observe IPCHUN, SAMJITANL, CHOPAIL, DANOH, SAMBOK, and DONGJI more commonly compared with other classes ($p < .001$), IPCHUN, SAMJITNAL, ($p < .01$). DAEBOREUM, YUDU, SAMBOK, JUNGYANGJEOL, OHIL, and DONGJI ($p < .001$) are celebrated more generally among extended.

2. On inheritance of the traditional holidays, most of the housewives answered that the SEOLNAL, DAEBOREUM, CHUSSEOK, and DONGJI are to be inherited.

Compared to general circumstance CHOPAIL is suggested to be inherited by older people ($p < .001$). The IPCHUN, CHOPAIL, SAMBOK ($p < .001$), and DANCH ($p < .01$) are suggested by Buddhists that YUDU and SAMBOK are by nuclear.

3. In preparing festive foods, DEOKGUK on SEOLNAL, OHKOKBAP and MUKEUNNAMUL on DAEBOREUM, SONGPYEON and GATEUNNAMUL on CHUSEOK, and PATJUK on DONGJI are being made very generally. KANGJEONG on SEOLNAL, BUREUM on DAEBOREUM, KALGUKSU and SAMGYAETANG on SAMBOK, DARKJIM on CHUSEOK, SUJEONGGWA and DONGCHIMI on DONGJI appeared comparatively high rated of making.

4. In normal times, DEOKGUK, MANDU, INJEOLMI, SIKHYAE, SUJEEONGGWA, PYEONYUK, JEONYUEO, SIRUDDEOK, BOKSSAM, MUKEUNNAMUL, SONGPYUN, MINARINAMUL, YUKGAEJANGGUK, KALGUKSU, SAMGYAETANG, HOBAKJIM, TORANTANG, GATEUNNAMUL, NUREUMJEOK, DAKJIM, KAL-

BIJIM, PATJJUK, and DONGCHIMI is usually made.

5. The source to learn about traditional foods is mostly by her mother and the rest orders are husband's mother, cooking books, mass media (including T.V), school education, and cooking institute, etc.

I. 序 論

人間生活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食生活은 그 民族의 歷史와 더불어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영향을 받아 그 민족특유의 食文化가 形成될 뿐만 아니라 그 地域의 자연환경이 바탕이 되어 여러 食事形式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 民族의 食生活樣式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그 民族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생활풍습, 의식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한 民族의 食生活史를 살펴보면 그 民族의 文化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성격인지를 알 수 있다. 즉 遊牧民族은 肉類調理法과 酪 農食品, 農業民族은 穀類食品과 草食調理, 그리고 더운지방에서는 음식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절임음식과 장기저장법이 발달되어 왔다.¹⁾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북위 33~43° 동경 124~131°로서 국토면적은 비록 적으나 사계절이 뚜렷한 좋은 기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적당한 습도, 여름철의 高溫多雨와 긴 日照時間, 많은 하천 등의 立地조건이 우리의 主食인 穀類를 재배하기에 적합하여 일찍부터 稻作文化를 발전시켰다.²⁾ 이러한 자연환경조건하에서 봄이 시작되는데 그해의 풍년을 빌고, 가을의 추수 때 풍년을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런 인간의 심정이며, 농업기술이 유지하면 할수록 생산이 자연에 제약되는도가 높아, 呪術儀禮의인 歲時風俗을 형성하였다.³⁾ 節食이란 歲時風俗日 즉 名節에 해당하는 음식으로 해마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 관습적으로 행하는 특수한 生活行爲이며, 일종의 人間生活技術로서 우리의 고유한 文化遺産이다.⁴⁾

우리의 名節로는 설날, 입춘, 정월대보름, 중화절, 삼짇날, 초파일, 단오, 유두절, 삼복, 칠석, 추석, 중앙절, 오일, 동지, 除夕 등으로 이와 같은 名節은 철에 맞추어 만들어진 歲時風俗으로서 독특한 행사와 더불어 그 계절식품을 이용하여 特別飲食을 만들었는데 이것으로 儀禮에 쓰기도 하고, 名節을 즐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급속한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간소화의 경향이 우리의 食生活 樣式에 인스턴트식품을 발달시켰고, 外來食品의 급격한 도입으로 전통적 조리법의 혼동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農作法의 발달로 비닐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食品이 季節에 관계없이 생산되어 季節의 食品이라는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民族의 風習과 源初의 生活

遺習이 담겨있는 名節과 節食에 관해 관심을 쏟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名節과 그에 따른 節食에 대해 주부들의 의식을 알아보고자 地域別로 名節과 節食의 施行정도를 比較조사하였으며, 아울러 名節의 傳承에 대한 의견, 平常時 利用度, 節食을 알게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사라져가는 節食과 風習의 계승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研究內容 및 方法

1. 研究內容

지역별 명절과 절식의 시행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문헌과 선행연구를 참고로 설문지를 작성 이용하였으며 문헌으로는 京都雜志,⁵⁾ 冽湯歲時記,⁶⁾ 東國歲時記⁷⁾ 등을 참고로 하였다.

본 조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調查對象者의 一般의 狀況
- 2) 名節의 施行實態에 관한 地域別 比較와 一般의인 要人과의 관계
- 3) 名節의 傳承에 대한 의견과 一般의인 要人과의 관계
- 4) 節食의 施行實態에 관한 地域別 比較
- 5) 平常時 節食의 利用度
- 6) 節食을 알게된 경위

2. 研究對象 및 期間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1988년 1월 15일부터 1988년 1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는 $r=.85$ 의 수준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는 임의로 선정된 강릉, 대전, 전주,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1988년 2월 15일부터 1988년 3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가정관리학을 전공하는 조사원들이 대상주부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설명한 후 답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각 지역당 250부씩 1000부를 배부하여 870부 회수하였으며 그 중 유효한 설문지 578부(66.4%)를 자료로 이용하였다.

3. 資料處理方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상황과 평상시 절식의 이용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조사하였으며 명절의 시행실태에 관한 지역별 비교, 명절의 전승에 대한 의견, 절식의 시행

실태에 관한 지역별 비교, 절식을 알게된 경위 등에 대한 일반적 상황의 각 변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빈도, 백분율, χ^2 -test를 적용시켰다. 본 조사의 자료처리와 분석은 SAS(S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에 의해 전산처리되었다.

III. 研究結果 및 考察

1.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狀況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상황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는 강릉 154명(26.6%), 대전 167명(28.9%), 전주 131명(22.7%), 대구 126명(21.8%)이었다. 연령은 40~49세가 38.4%, 30~39세가 34.1%, 50세 이상 15.4%, 20세 이하 12.1%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38.4%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이 24.7%, 대졸이 20.9%이었다. 불교가 조사대상자의 33.0%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가 27.2%, 무(기타)가 27.3%, 천주교가 12.5%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수입에서는 31만원~50만원이 46.9%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으며 취업주부가 36.2%, 비취업주부가 63.8%이었다. 가족형태에서는 핵가족이 79.1%로 확대가족 20.9%보다 현저하게 많았다. 며느리 서열은 만며느리가 37.7%이었다.

2. 名節의 施行實態

1) 地域別 比較

우리나라의 절후에 따른 명절의 시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꼭 시행한다와 대체로 시행한다를 합하여 설날, 대보름, 추석의 지역에 관계없이 90% 이상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중화절, 입춘, 초파일, 단오, 삼복, 동지는 지역에 따라 매우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는데 그 중 입춘, 중화절, 단오는 강릉이 각각 55.9%, 17.6%, 57.8%로 타지역에 비해 높은 시행율을 보였다.

삼복은 대구가 타지역에 비해서 시행율이 높게 나타났다(76.2%), 동지는 강릉, 대구가 90% 이상의 시행율을 보였고 다음이 전주, 대전의 순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삼진날, 유두일은 시행율은 낮으나 $p < .05$ 의 수준에서 집단간에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이상에서 단오의 시행율이 강릉에서 높게 나타난 점은 전통적인 강릉의 행사로 단오를 꼽기 때문⁸⁾이라고 생각되며 대구지역에서 초파일의 시행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불교가 가장 성행한 신라의 본거지가 경북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삼복의 시행율이 대구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타지역에 비해 대구의 삼복더위가 대단히 높기 때문일 것이다.

2) 一般的 要人과의 관계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상황

상황 변수	집 단	빈도(N)	백분율(%)
거 주 지	강릉	154	26.6
	대전	167	28.9
	전주	131	22.7
	대구	126	21.8
연 령	20세 이하	70	12.1
	30세~39세	197	34.1
	40세~49세	222	38.4
	50세 이상	89	15.4
학 력	무	15	2.6
	국졸	77	13.3
	중졸	143	24.7
	고졸	222	38.4
	대졸	121	20.9
종 교	불교	191	33.0
	기독교	157	27.2
	천주교	2	12.5
	무(기타)	158	27.3
가정의 월수입	30만원 이하	66	11.4
	31만원~50만원	271	46.9
	51만원~70만원	158	27.3
	70만원 이상	83	14.4
직 업	있 다	209	36.2
	없 다	369	63.8
가족 형태	핵가족	457	79.1
	확대가족	121	20.9
며느리	만며느리	218	37.7
	(외며느리)		
	기 타	360	62.3
계		578	100.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요인과 명절의 시행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령에 있어서는 50세 이상이 모든 명절에의 시행율이 가장 높았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통적인 성향을 띤다⁹⁾고 볼 때 연령이 높은 층에서 전통적인 명절에 더 관심과 집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초파일은 연령이 높을 수록 시행율이 높았고($p < .001$) 학력이 높을수록 시행율이 낮았다($p < .001$).

종교에 따른 명절의 시행실태는 입춘, 삼진날, 초파일, 단오, 삼복, 동지가 집단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으며($p < .001$), 불교집단이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이는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역사가 길어 전통이 깊은 반면 기독교와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전

표 2. 명절의 시행실태에 관한 지역별 비교

분류 단위 요인	강릉			대전			전주			대구			x ²
	꼭 시행한다	대체로 시행한다	시행하지 않는다	꼭 시행한다	대체로 시행한다	시행하지 않는다	꼭 시행한다	대체로 시행한다	시행하지 않는다	꼭 시행한다	대체로 시행한다	시행하지 않는다	
설날	150 (97.4)	4 (2.6)	0 (0.0)	155 (92.8)	12 (7.2)	0 (0.0)	125 (95.4)	6 (4.6)	0 (0.0)	115 (91.3)	9 (7.1)	2 (1.6)	11.635
입춘	6 (3.9)	80 (52.0)	68 (44.2)	5 (3.0)	26 (15.6)	136 (81.4)	3 (2.3)	19 (14.5)	109 (83.2)	4 (3.2)	20 (16.0)	102 (80.8)	83.129***
대보름	63 (40.9)	77 (50.0)	14 (9.1)	80 (47.9)	73 (43.7)	14 (8.4)	72 (55.0)	51 (38.9)	8 (6.1)	69 (54.8)	45 (35.7)	12 (9.5)	8.840
중화절	1 (0.7)	26 (16.9)	127 (82.5)	2 (1.2)	6 (3.6)	159 (95.2)	0 (0.0)	4 (3.1)	127 (97.0)	4 (3.2)	11 (8.7)	111 (88.1)	31.129***
삼짇날	7 (4.6)	43 (27.9)	104 (67.5)	6 (3.6)	21 (12.6)	140 (83.8)	5 (3.8)	22 (16.8)	104 (79.4)	9 (7.1)	22 (17.5)	95 (75.4)	15.943*
초파일	32 (20.8)	43 (27.9)	79 (51.3)	34 (20.4)	26 (15.6)	107 (64.1)	11 (8.4)	23 (17.6)	97 (74.1)	55 (43.7)	20 (15.9)	51 (40.5)	59.463***
단오	62 (40.3)	27 (17.5)	65 (42.4)	14 (8.4)	21 (12.6)	132 (79.0)	9 (6.9)	33 (25.2)	89 (67.9)	20 (16.0)	30 (24.0)	76 (60.0)	85.756***
유두일	0 (0.0)	2 (1.3)	152 (98.7)	3 (1.8)	10 (6.0)	154 (92.2)	0 (0.0)	7 (5.3)	124 (94.7)	4 (3.2)	5 (4.0)	117 (92.9)	13.183*
삼복	26 (16.9)	82 (53.3)	46 (29.9)	23 (13.8)	72 (43.1)	72 (43.1)	19 (14.5)	57 (43.5)	55 (42.0)	38 (30.2)	58 (46.0)	30 (23.8)	25.495***
추석	150 (97.4)	4 (2.6)	0 (0.0)	160 (95.8)	7 (4.2)	0 (0.0)	124 (94.7)	7 (5.3)	0 (0.0)	118 (93.7)	8 (6.4)	0 (0.0)	2.555
중양절	0 (0.0)	6 (3.9)	148 (96.1)	1 (0.6)	5 (3.0)	161 (96.4)	1 (0.8)	3 (2.3)	127 (97.0)	4 (3.2)	6 (4.8)	115 (92.0)	9.182
오일	0 (0.0)	3 (2.0)	151 (97.4)	0 (0.0)	3 (1.8)	164 (98.2)	0 (0.0)	1 (0.8)	130 (99.2)	2 (1.6)	7 (5.7)	116 (92.7)	17.551
동지	74 (48.1)	72 (46.8)	8 (5.2)	55 (32.9)	75 (44.9)	37 (22.2)	41 (31.3)	72 (55.0)	18 (13.7)	72 (57.1)	46 (36.5)	8 (6.4)	43.326***

*p<.05, ***p<.001 N(%)1

래된 역사가 짧고 또한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이 축설적인 의례로 많이 기울어졌기³⁾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초파일은 불교신자의 경우 타종교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시행율을 보였는데 이는 초파일이 명절의 의미보다 종교적 의례행사이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가족형태에 따른 시행실태는 입춘, 삼짇날은 p<.01 수준에서 대보름, 유두, 삼복, 중양절, 오일, 동지는 p<.001 수준에서 유의차를 보였는데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명절의 시행실태에 있어서 가족형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3. 名節의 傳承에 대한 의견

각 명절의 전승에 대한 의견의 응답에서는 설날, 대보름, 추석, 동지는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전승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입춘, 삼짇날, 초파일, 단오, 삼복은 40% 이상, 그 외 중화절, 유두일, 중양절, 오일은

조사대상자의 10% 이상이 전승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여 명절의 시행실태와 비교해 볼 때 전승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모두 높게 나타나 전통적인 명절을 지켜나가는데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표 4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요인과 명절의 전승에 대한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연령에 있어서 초파일이 p<.001 수준에서 유의차를 나타내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전승해야한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삼복은 p<.01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종교에 따른 전승에 대한 의견은 입춘, 초파일, 삼복이 p<.001 수준에서, 삼짇날, 단오가 p<.01 수준에서 유의차를 나타내었는데 모두 불교에서 전승해야 한다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따른 전승에 대한 의견은 유두, 삼복이 p<.01 수준에서 유의차를 나타내었는데 확대가족집단에서 전승해야 한다가 높게 나타났다.

4. 節食의 施行에 관한 地域別 比較

표 3. 연령의 시행 실태와 요인과의 관계

요인	분류	실		입		대		중		삼		단		유		추		중		오		통
		날	출	날	날	보	화	진	파	오	부	복	석	결	일	일	일	일	일	일		
연령	단위	29세 이하	92.9 (7.1)	0.0 (17.1)	52.9 (41.4)	0.0 (10.0)	1.43 (14.3)	10.0 (14.3)	7.1 (18.6)	0.0 (5.7)	17.1 (35.7)	97.1 (2.9)	2.9 (4.3)	0.0 (1.4)	34.3 (50.0)							
		30세~39세	94.9 (5.1)	2.3 (23.4)	43.7 (44.7)	0.5 (5.6)	2.5 (16.8)	18.3 (18.3)	17.3 (14.2)	0.5 (2.5)	18.8 (45.7)	94.4 (5.6)	0.5 (1.0)	0.5 (1.0)	35.5 (50.8)							
		40세~49세	93.7 (5.9)	4.0 (30.2)	49.6 (42.8)	0.9 (8.1)	5.0 (20.3)	26.6 (21.2)	22.5 (22.0)	0.9 (4.1)	18.0 (49.1)	96.0 (4.1)	0.5 (5.0)	0.5 (3.6)	45.5 (44.1)							
		50세 이상	95.5 (3.4)	50.0 (46.2)	57.3 (28.2)	4.5 (23.4)	11.2 (22.5)	33.7 (21.4)	18.2 (23.9)	4.5 (6.7)	19.1 (50.6)	95.5 (4.5)	2.3 (4.5)	2.3 (3.4)	52.8 (36.0)							
	χ^2	3.798	12.424	8.173	14.371*	16.149*	23.124***	16.360*	13.282*	6.318	1.081	10.319	7.996	11.176								
학력	무	무	100.0 (0.0)	6.7 (33.3)	60.0 (40.0)	0.0 (0.0)	20.0 (33.3)	13.3 (46.7)	6.7 (13.3)	26.7 (46.7)	100 (0.0)	0.0 (0.0)	0.0 (0.0)	40.0 (46.0)								
		국졸	94.8 (5.2)	5.2 (19.5)	59.7 (35.0)	1.3 (6.5)	7.8 (9.5)	32.5 (26.0)	22.1 (29.9)	5.2 (10.4)	18.2 (49.4)	94.8 (5.2)	1.3 (9.1)	0.0 (0.0)	48.1 (35.1)							
		중졸	93.7 (4.9)	3.5 (28.9)	53.2 (40.6)	0.7 (7.0)	6.3 (21.0)	30.8 (21.0)	21.8 (21.1)	0.7 (2.8)	21.0 (46.9)	93.0 (7.0)	1.4 (3.5)	1.3 (3.9)	49.7 (38.5)							
		고졸	93.7 (6.3)	2.7 (26.1)	45.1 (44.6)	2.3 (8.1)	2.7 (16.7)	21.2 (16.7)	19.4 (13.1)	0.5 (1.4)	17.6 (44.1)	96.0 (4.1)	0.9 (1.8)	0.0 (1.4)	38.7 (48.7)							
	χ^2	7.431	6.814	10.179	7.709	18.648*	30.148***	28.792	34.107	3.633	4.115	10.170	11.337	14.029								
종교	불교	불교	96.3 (3.1)	6.3 (35.6)	59.2 (36.1)	2.1 (11.5)	10.5 (25.7)	61.8 (29.3)	31.4 (25.1)	3.1 (4.7)	27.8 (48.7)	96.9 (3.1)	1.6 (4.7)	1.1 (1.6)	61.3 (34.6)							
		기독교	94.9 (5.1)	1.9 (24.8)	45.0 (46.5)	0.6 (5.7)	2.6 (19.8)	2.6 (10.8)	15.3 (15.9)	0.6 (4.5)	14.7 (47.1)	96.8 (3.2)	0.6 (1.9)	0.0 (1.3)	32.5 (54.8)							
		천주교	86.1 (12.5)	1.4 (18.3)	37.5 (48.6)	1.4 (6.9)	2.8 (11.1)	4.2 (15.3)	12.7 (12.7)	0.0 (2.8)	12.5 (44.4)	90.3 (9.7)	1.4 (5.6)	0.0 (1.4)	36.1 (38.9)							
		무교(기타)	94.9 (5.1)	0.3 (15.8)	46.8 (43.7)	0.6 (7.0)	0.6 (12.7)	4.4 (17.7)	7.6 (18.4)	0.0 (3.8)	13.3 (44.3)	94.9 (5.1)	0.6 (2.5)	0.0 (5.1)	30.9 (53.8)							
	χ^2	12.779*	32.830***	15.830*	6.907	38.697***	325.131***	53.120***	9.862	25.735***	6.140	4.601	12.473	58.288***								

표 3. 계속

요인	분류	실		입		대		중		삼		단		유		삼		추		중		양		결		오		일		동	
		남	출	보	화	진	파	오	두	복	석	오	부	석	결	일	지														
총 수	30만원 이하	95.5 (3.0)	3.0 (12.1)	56.1 (36.4)	0.0 (0.0)	4.6 (18.2)	22.7 (15.2)	16.7 (16.7)	1.5 (4.6)	15.2 (33.3)	92.4 (7.6)	1.5 (3.0)	0.0 (0.0)	0.0 (0.0)	37.9 (42.4)																
	31만원~50만원	94.8 (4.8)	3.7 (30.4)	54.2 (39.1)	1.1 (9.2)	3.0 (23.3)	22.5 (24.7)	22.2 (20.0)	0.4 (5.5)	18.1 (48.7)	96.7 (3.3)	1.1 (2.0)	0.4 (3.3)	0.4 (3.3)	43.9 (43.9)																
	51만원~70만원	93.7 (6.3)	1.3 (21.5)	38.0 (51.3)	1.3 (8.9)	4.4 (15.8)	22.8 (13.9)	15.8 (15.2)	1.9 (2.5)	17.7 (50.6)	94.3 (5.7)	0.6 (3.8)	0.6 (2.6)	0.6 (2.6)	38.0 (50.6)																
	70만원 이상	97.0 (3.0)	4.8 (25.3)	48.2 (42.2)	2.4 (9.6)	0.8 (9.6)	24.1 (15.7)	10.8 (26.5)	2.4 (2.4)	22.9 (42.2)	96.4 (3.6)	1.2 (4.8)	0.0 (1.2)	0.0 (1.2)	45.8 (45.8)																
χ^2	5.135	14.575*	12.540	8.655	16.438*	10.003	11.586	6.146	10.880	3.008	1.186	5.187	6.636																		
직업	있다	91.9 (7.2)	1.9 (22.1)	47.4 (43.0)	1.0 (8.1)	5.3 (17.2)	18.7 (15.3)	15.9 (21.6)	1.0 (3.8)	13.4 (50.7)	93.8 (6.2)	0.5 (3.4)	0.0 (2.9)	0.0 (2.9)	32.5 (2.6)																
	없다	95.7 (4.3)	3.8 (26.8)	50.1 (42.3)	1.4 (8.1)	4.3 (19.5)	25.2 (21.7)	19.5 (17.9)	1.4 (4.3)	21.1 (44.2)	96.5 (3.5)	1.4 (3.5)	0.5 (2.2)	0.5 (2.2)	47.2 (42.0)																
χ^2	5.743	3.473	0.858	0.177	0.651	9.144*	1.944	0.269	5.642	2.259	1.022	1.972	11.828**																		
가형	해가족	93.9 (5.9)	2.4 (22.8)	44.9 (45.7)	1.3 (7.4)	3.5 (17.5)	22.1 (17.5)	17.5 (17.1)	1.1 (2.4)	14.9 (47.3)	95.0 (5.0)	0.7 (2.0)	0.2 (1.5)	0.2 (1.5)	37.4 (48.4)																
	확대가족	95.9 (3.3)	5.8 (34.2)	65.3 (30.6)	0.8 (10.7)	9.1 (23.1)	25.6 (26.5)	20.8 (27.5)	1.7 (10.7)	31.4 (43.8)	97.5 (2.5)	2.5 (9.2)	0.8 (5.9)	0.8 (5.9)	58.7 (36.4)																
χ^2	2.269	11.416**	16.498***	1.555	9.598**	7.036	8.831	17.060***	19.140***	1.452	18.124***	8.883	20.015***																		
머서	만머느리	97.3 (2.8)	2.8 (22.9)	51.4 (39.9)	1.4 (9.2)	5.5 (15.6)	22.0 (16.1)	12.8 (24.8)	0.5 (6.4)	22.0 (43.6)	98.6 (1.4)	1.4 (5.1)	0.0 (4.1)	0.0 (4.1)	42.2 (45.9)																
	(외머느리)	92.5 (6.9)	3.3 (26.5)	47.8 (44.2)	1.1 (7.5)	4.2 (20.6)	23.3 (21.4)	21.5 (15.9)	1.7 (2.8)	16.1 (49.3)	93.6 (6.4)	0.8 (2.5)	0.6 (1.4)	0.6 (1.4)	41.7 (45.8)																
	기타	5.985	1.143	1.008	0.603	2.540	3.135	11.096**	6.064*	3.295	7.942**	3.038	6.037	0.046																	

* $p < .05$ ** $p < .01$ *** $p < .001$ 시행한다 % (대체로 시행한다 %)

표 4. 명질의 진흥에 대한 의견과 요인과의 관계

요인	단위	분류		실	입	대	중	화	진	삼	조	파	단	유	삼	추	중	양	오	분	
		날	술																		보
연령	29세 이하	69 (98.6)	32 (45.7)	66 (92.3)	13 (18.6)	20 (28.6)	26 (37.1)	36 (51.4)	12 (17.1)	31 (44.3)	69 (98.6)	12 (17.1)	8 (11.4)	58 (82.9)							
	30세~39세	195 (98.9)	87 (44.2)	180 (91.4)	29 (14.7)	65 (33.0)	96 (48.7)	119 (60.4)	28 (14.2)	128 (65.0)	194 (98.5)	26 (13.2)	24 (12.2)	175 (98.8)							
	40세~49세	214 (96.4)	110 (49.6)	204 (91.9)	46 (20.7)	81 (36.5)	136 (61.3)	142 (64.0)	47 (21.2)	155 (69.8)	216 (97.3)	38 (17.1)	30 (13.5)	195 (87.8)							
	50세 이상	88 (98.9)	44 (49.4)	83 (93.3)	28 (31.5)	42 (47.2)	58 (65.2)	55 (61.80)	22 (24.7)	60 (67.4)	87 (97.8)	19 (21.4)	11 (12.4)	77 (86.5)							
χ^2		4.180	1.462	0.781	10.869*	7.310	19.331***	3.562	5.686	0.883	3.168	0.290	1.777								
학력	무(한학)	14 (93.3)	9 (60.0)	13 (86.7)	2 (13.3)	9 (1.6)	6 (40.0)	12 (80.0)	2 (13.3)	10 (66.7)	13 (86.7)	1 (6.7)	0 (0.0)	10 (66.7)							
	국졸	76 (93.3)	36 (46.8)	72 (93.5)	19 (24.7)	32 (41.6)	49 (63.6)	48 (62.3)	22 (28.6)	52 (67.5)	75 (97.4)	13 (16.9)	9 (11.7)	65 (84.4)							
	중졸	141 (98.6)	73 (51.1)	135 (94.4)	24 (16.8)	55 (38.5)	91 (63.6)	87 (60.8)	22 (15.4)	103 (72.0)	140 (97.9)	26 (18.2)	22 (15.4)	124 (86.7)							
	고졸	216 (97.3)	98 (44.1)	201 (90.5)	39 (17.6)	67 (30.2)	109 (49.1)	130 (58.6)	34 (15.3)	135 (60.8)	219 (98.7)	32 (14.4)	26 (11.7)	193 (86.9)							
	대졸	119 (98.4)	57 (47.1)	112 (92.6)	32 (26.5)	45 (37.2)	61 (50.4)	75 (62.0)	29 (24.0)	74 (61.2)	119 (98.4)	23 (19.0)	16 (13.2)	113 (93.4)							
χ^2		2.642	2.674	2.665	6.339	8.498	12.105*	2.936	10.059*	5.794	10.133*	3.422	10.501*								
종교	불교	186 (97.4)	105 (55.0)	177 (92.7)	45 (23.6)	86 (45.0)	172 (90.1)	132 (69.1)	34 (17.8)	149 (78.0)	184 (96.3)	33 (17.3)	25 (13.1)	176 (92.2)							
	기독교	155 (98.7)	84 (53.5)	148 (94.3)	26 (16.6)	55 (35.0)	49 (31.2)	93 (59.2)	33 (21.00)	87 (55.4)	155 (98.7)	29 (18.5)	21 (13.4)	142 (90.5)							
	천주교	67 (93.1)	25 (34.7)	64 (88.9)	16 (22.2)	24 (33.3)	25 (34.7)	33 (45.8)	11 (15.3)	41 (56.9)	71 (98.6)	9 (12.5)	7 (9.7)	55 (76.4)							
	무교(기타)	158 (100.0)	59 (37.3)	144 (91.1)	29 (18.4)	43 (27.2)	70 (44.3)	94 (59.5)	31 (19.6)	97 (61.4)	156 (98.7)	24 (15.2)	20 (12.7)	132 (83.5)							
χ^2		12.516**	17.792***	2.341	3.154	12.334**	149.767***	12.584**	1.282	23.399***	3.546	0.667	15.259								

표 4. 계속

요인	분류	단위										총 양	오	동	
		설	일	대	중	삼	초	단	유	삼	추				정
가정	30만원 이하	남	25	63	7	21	36	40	10	33	63	10	6	56	
		여	(37.9)	(95.5)	(10.6)	(3.6)	(54.6)	(60.6)	(15.2)	(50.0)	(95.5)	(15.2)	(9.1)	(9.7)	
		합	148	249	50	1056	154	170	49	176	264	44	29	230	
		비율	(54.6)	(91.9)	(18.5)	(38.8)	(56.8)	(62.7)	(18.1)	(64.9)	(97.4)	(16.2)	(10.7)	(84.9)	
가정	31~50만원	남	62	143	36	52	78	90	30	108	156	25	22	142	
		여	(39.2)	(90.5)	(22.8)	(32.9)	(49.4)	(57.0)	(19.0)	(68.4)	(98.7)	(15.8)	(13.9)	(89.9)	
		합	38	78	23	30	48	52	20	57	83	16	16	77	
		비율	(45.8)	(14.6)	(27.7)	(36.1)	(57.8)	(62.7)	(24.1)	(68.7)	(100.0)	(19.3)	(92.8)		
가정	51~70만원	남	12.358**	2.008	7.875*	2.043	2.637	1.520	2.190	7.750	4.592	0.618	5.226	5.006	
		여	(97.6)	(14.6)	(27.7)	(36.1)	(57.8)	(62.7)	(24.1)	(68.7)	(100.0)	(19.3)	(92.8)		
		합	206	195	42	71	109	128	44	125	204	39	30	184	
		비율	(98.6)	(93.3)	(20.1)	(34.0)	(52.2)	(61.2)	(21.1)	(59.8)	(97.6)	(18.7)	(14.4)	(88.0)	
가정	70만원 이상	남	181	338	74	137	207	224	65	249	362	56	43	321	
		여	(49.0)	(91.6)	(20.1)	(37.1)	(56.1)	(60.7)	(17.6)	(67.5)	(98.1)	(15.2)	(11.7)	(87.0)	
		합	360	338	74	137	207	224	65	249	362	56	43	321	
		비율	(97.6)	(91.6)	(20.1)	(37.1)	(56.1)	(60.7)	(17.6)	(67.5)	(98.1)	(15.2)	(11.7)	(87.0)	
가정	x ²	남	0.661	1.356	0.000	0.577	0.838	0.016	1.030	3.438	0.161	1.179	0.882	0.132	
		여	(448)	(210)	(421)	(151)	(241)	(271)	(78)	(283)	(449)	(66)	(55)	(400)	
		합	(98.0)	(46.0)	(92.1)	(33.0)	(52.7)	(59.3)	(17.1)	(61.9)	(98.3)	(14.4)	(12.0)	(87.5)	
		비율	(97.5)	(52.1)	(92.6)	(47.1)	(62.0)	(66.9)	(25.6)	(75.2)	(96.7)	(24.0)	(14.9)	(86.8)	
가정	x ²	남	0.122	1.435	0.033	8.217*	3.302	2.347	4.573*	7.389**	1.138	6.319*	0.700	0.049	
		여	(213)	(92)	(200)	(73)	(117)	(129)	(44)	(147)	(216)	(30)	(24)	(187)	
		합	(97.7)	(42.2)	(91.7)	(33.5)	(53.7)	(59.2)	(20.2)	(67.4)	(99.1)	(13.8)	(11.0)	(85.8)	
		비율	(98.1)	(50.3)	(92.5)	(37.5)	(55.3)	(61.9)	(18.0)	(63.1)	(97.2)	(18.1)	(13.6)	(88.3)	
가정	x ²	남	0.081	3.553	0.108	1.265	0.142	0.438	0.402	1.138	2.311	1.823	0.833	0.802	
		여	(353)	(181)	(333)	(135)	(199)	(223)	(65)	(227)	(350)	(65)	(49)	(318)	
		합	(98.1)	(50.3)	(92.5)	(37.5)	(55.3)	(61.9)	(18.0)	(63.1)	(97.2)	(18.1)	(13.6)	(88.3)	
		비율	(98.1)	(50.3)	(92.5)	(37.5)	(55.3)	(61.9)	(18.0)	(63.1)	(97.2)	(18.1)	(13.6)	(88.3)	

*p<.05 **p<.01 ***p<.001 진출하는 것이 좋다 N(%)

표 5~16은 절식의 시행에 관한 지역별 비교로 東國歲時記⁷⁾에 기록된 92가지의 음식을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 해먹지 않는다고 분류하였다.

1) 설날

각 가정에서 설날아침 일찍 歲饌과 歲酒를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正朝茶禮가 가장 중요한 새해의 첫 행사이다.⁹⁾ 설날의 음식 중 떡국은 강릉지역이 조사대상자의 98.7%가 꼭 해먹는다고 하였으며, 그외지역도 70% 이상이 꼭 해먹는다고 하여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볼 수 있으며, 강정은 대구지역이 71.4% 그외 지역은 약 30% 정도만 꼭 해먹는다고 하였다. 강정이 대구지역에서 높은 시행율을 보인 것은 강정이 경주의 향토음식¹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만두는 강릉

지역이 꼭 해먹는다가 87.5%로 나타났고 전주지역은 19.9%로 나타나 뚜렷한 지역차이를 알 수 있었다. 만두는 손이 많이 가는 품귀한 음식인데 대만두는 의주 사람이 중국인처럼 잘 만든다¹¹⁾고 한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 전래된 음식으로 전래후 점차 우리 고유음식으로 발전된 것으로¹²⁾ 남부지역보다는 중부이북지역에서 많이 해먹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식혜는 전주지역이 53.9%, 강릉지역이 18.2%가 꼭 해먹는다고 하였으며, 그외 인절미, 수정과, 약과, 전유어, 편육, 시루떡 등인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꼭 해먹는다고와 가끔 해먹는다고를 합하여 50%가 넘게 해먹고 있었다. 그러나 주악, 수수전병, 단자류 등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해먹지 않고 있었다.

표 5. 설날의 절식

분류 단위 요인	강			대			전			대			x ²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 지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 지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 지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 지않는다	
떡 국	152 (98.7)	2 (1.3)	0 (0.0)	144 (86.2)	23 (13.8)	0 (0.0)	96 (73.3)	33 (25.2)	2 (1.5)	96 (76.2)	30 (23.8)	0 (0.0)	53.524***
강정류	47 (30.5)	36 (23.4)	71 (46.1)	48 (28.7)	75 (44.9)	44 (26.4)	28 (21.4)	61 (46.6)	42 (32.1)	90 (71.4)	23 (18.3)	13 (10.3)	110.228***
만 두	132 (85.7)	21 (13.6)	1 (0.7)	53 (31.7)	88 (52.7)	26 (15.6)	26 (19.9)	48 (36.6)	57 (43.5)	29 (23.0)	47 (37.3)	50 (39.7)	212.553***
주 악	43 (27.9)	10 (6.5)	101 (65.6)	10 (6.0)	18 (10.8)	139 (83.2)	6 (4.6)	9 (6.9)	116 (88.5)	18 (14.3)	12 (9.5)	96 (76.2)	46.582***
인절미	36 (23.4)	39 (25.3)	79 (51.3)	37 (22.2)	84 (50.3)	46 (27.5)	48 (36.6)	56 (42.8)	27 (20.6)	35 (27.8)	53 (42.1)	38 (30.2)	43.417***
식 혜	28 (18.2)	94 (61.0)	32 (20.8)	60 (35.9)	93 (55.7)	14 (8.4)	70 (53.9)	47 (36.2)	13 (10.0)	38 (29.6)	49 (39.2)	39 (31.2)	67.412***
수정과	27 (17.5)	109 (70.8)	18 (11.7)	44 (26.4)	94 (56.3)	29 (17.4)	44 (33.6)	49 (37.4)	38 (29.0)	32 (25.4)	54 (42.9)	41 (32.5)	43.858***
약 식	40 (26.0)	66 (42.9)	48 (31.2)	40 (24.0)	73 (43.7)	54 (32.3)	24 (18.3)	54 (41.2)	53 (40.5)	25 (19.9)	40 (31.8)	61 (48.4)	12.616*
약 과	61 (39.6)	31 (20.1)	62 (40.2)	56 (33.5)	60 (35.9)	51 (30.5)	28 (21.8)	30 (22.9)	73 (55.7)	30 (23.8)	41 (32.5)	55 (43.7)	30.837***
밤 초	5 (3.3)	36 (23.4)	113 (73.4)	15 (9.0)	24 (14.4)	128 (76.7)	3 (3.3)	19 (14.5)	109 (83.2)	17 (13.5)	18 (14.3)	91 (72.2)	22.661***
전유어	54 (35.1)	80 (52.0)	20 (13.0)	54 (32.3)	50 (29.9)	63 (37.7)	59 (45.4)	43 (33.1)	28 (21.5)	65 (52.0)	34 (27.2)	26 (20.8)	46.305***
수수전병	14 (9.1)	36 (23.4)	104 (67.5)	10 (6.0)	22 (13.1)	135 (80.8)	2 (1.5)	18 (13.7)	111 (84.7)	10 (7.9)	22 (17.5)	94 (74.6)	16.481*
단자류	8 (5.2)	34 (22.1)	112 (72.7)	22 (13.1)	40 (24.0)	105 (62.9)	8 (6.1)	26 (19.9)	97 (4.1)	21 (16.7)	24 (19.1)	81 (64.3)	15.641*
편 육	70 (45.5)	46 (29.9)	38 (24.7)	60 (35.9)	57 (34.1)	50 (29.9)	23 (17.6)	50 (38.2)	58 (44.3)	59 (46.8)	36 (28.6)	31 (24.6)	33.460***
빈자떡	45 (29.2)	38 (24.7)	71 (46.1)	61 (36.8)	69 (41.6)	36 (21.7)	25 (19.1)	66 (50.4)	40 (30.5)	23 (18.3)	40 (31.8)	63 (50.0)	48.929***
시루떡	32 (20.8)	37 (24.0)	85 (55.2)	33 (19.8)	79 (47.3)	55 (32.9)	60 (46.1)	47 (36.2)	23 (17.7)	38 (30.4)	51 (40.8)	36 (28.8)	65.492***

*p<.05 **p<.01 ***p<.001 N(%)

표 6. 대보름의 절식

분류 단위 요인	강릉			대전			전주			대구			x ²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 지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 지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 지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 지않는다	
오곡밥	94 (61.0)	52 (33.8)	8 (5.2)	134 (80.2)	28 (16.8)	5 (3.0)	62 (47.3)	46 (35.1)	20 (17.6)	83 (65.9)	39 (31.0)	4 (3.2)	52.897***
복쌈	70 (45.5)	58 (37.7)	26 (16.9)	74 (44.3)	43 (25.8)	50 (29.9)	50 (38.2)	43 (32.8)	38 (29.0)	60 (47.6)	35 (27.8)	31 (24.6)	12.238
귀밝이술	32 (20.8)	54 (35.1)	68 (44.2)	60 (36.1)	36 (21.7)	70 (42.2)	15 (11.5)	13 (9.9)	103 (78.6)	54 (42.9)	23 (18.3)	49 (38.9)	78.763***
묵은나물	53 (34.4)	76 (49.4)	25 (16.2)	112 (67.1)	39 (23.4)	16 (9.5)	75 (57.7)	51 (39.2)	4 (3.1)	88 (71.0)	24 (19.4)	12 (9.2)	59.025***
부름	95 (61.7)	38 (24.7)	21 (13.6)	121 (72.5)	27 (16.2)	19 (11.4)	58 (44.3)	30 (22.9)	43 (32.8)	80 (63.5)	25 (19.8)	21 (16.7)	34.694***
원소병	3 (2.0)	9 (5.8)	142 (92.2)	9 (5.4)	10 (6.0)	148 (88.6)	3 (2.3)	13 (9.9)	115 (87.8)	9 (7.1)	16 (12.7)	101 (80.2)	12.961*
유밀과	4 (2.6)	13 (8.4)	137 (89.0)	5 (3.0)	10 (6.0)	152 (91.0)	8 (6.1)	21 (16.0)	102 (77.9)	17 (13.5)	19 (15.1)	90 (71.4)	31.729***
약식	61 (39.6)	39 (25.3)	54 (35.1)	27 (16.2)	61 (36.5)	79 (47.3)	24 (18.3)	59 (45.0)	48 (36.6)	31 (24.6)	40 (31.8)	55 (43.7)	33.152***

*p<.05 ***p<.001 N(%)

표 7. 중화절의 절식

분류 단위 요인	강릉			대전			전주			대구			x ²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 지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 지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 지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 지않는다	
떡류	6 (3.9)	5 (3.3)	143 (92.9)	3 (1.8)	7 (4.2)	157 (94.0)	2 (1.5)	2 (1.5)	127 (97.0)	6 (4.8)	8 (6.4)	112 (88.9)	13.510*
콩볶음	15 (9.7)	38 (24.7)	101 (65.6)	12 (7.2)	33 (19.8)	122 (73.1)	11 (8.4)	27 (20.6)	93 (71.0)	33 (26.2)	39 (31.0)	54 (42.9)	42.270***
진사술	10 (6.5)	18 (11.7)	126 (81.8)	9 (5.4)	19 (11.4)	139 (83.2)	3 (2.3)	10 (7.6)	118 (90.1)	7 (5.6)	7 (5.6)	112 (88.9)	5.258

*p<.05 ***p<.001 N(%)

2) 정월대보름

오곡밥과 부름을 꼭 해먹는다가 대전이 80.2%, 72.5%로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귀밝이술, 묵은나물은 대구가 42.9%, 92.0%로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보름의 풍습이 영남지방 특히 경주지방의 풍속이치만¹⁰⁾ 절식인 오곡밥, 복쌈, 묵은나물, 부름 등은 지역간의 유의차는 있으나 대부분 많이 해먹고 있었다. 일년중 만월인 이날은 오곡으로 밥을 지어먹고 배추 잎과 참취나물, 김으로 밥을 싸서 먹었으며 이것을 복쌈이라 하는데 풍년들기를 바라는 뜻으로 먹는 음식이다. 귀밝이술이라하여 청주 한잔을 데우지 않고 마신다. 이것을 유릉주라 한다. 박나물, 버섯 등의 말린 것과 대두황진, 순무, 무우 등을 묵혀둔다. 이것을 진채(묵은나물)라 하며 보름날아침 나물로 무쳐 먹는다. 외꼭지, 가지고지, 시래기 등도 모두 버리지 않고 말려두었다가 삶아서 먹는다. 이것들을 먹으면 더위를

먹지않는다고 한다.⁴⁾ 약식은 신라 소지왕이 까마귀의 은혜로 생명을 건져 옛날 경주사람이 이를 기념하고자 대보름날 까마귀 제사음식으로 약식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절식시행풍습은 육신의 건강이나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으로 이용된 음식으로 신앙성이 포함된 음식인듯 하다.

3) 중화절

속칭 노비일, 머슴날이라고도 하여 농사일이 이때부터 시작되므로 떡류를 만들어 이날 머슴들에게 나이수대로 나누어 먹였는데¹³⁾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풍습이다. 중화절의 절식으로 떡류, 콩볶음, 진사술 등이 있는데 콩볶음의 경우 p<.001 수준에서 유의차를 보였으며 대구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높은 시행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떡류, 진사술은 지역에 관계없이 거의 해먹지않는것을 알 수 있었다. 중화절의 절식도 거의 해먹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명절과 함께

음식도 사라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삼진날

삼진날의 절식은 봄의 미각을 돕기위한 時食으로 볼 수 있는데 편(절편, 녹말편)은 강릉지역이 33.1%로 다른지역에 비해 조금 높은 시행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외의 절식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거의

해먹지 않고 있었다.

5) 초파일

사월 초파일은 석가모니의 탄신일이다. 우리나라의 풍속에 이날 등불을 켜므로 燈夕이라 한다.⁶⁾ 燈夕節은 신라, 고려시대를 통하여 불교가 성행하던 때의 遺俗인데¹³⁾ 오늘날에도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초파일의

표 8. 삼진날의 절식

분류 단위 요인	강릉			대전			전주			대구			x ²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진달래	20	14	120	2	12	153	4	11	116	7	10	109	24.118***
화전	(13.0)	(9.1)	(77.9)	(1.2)	(7.2)	(91.6)	(3.1)	(8.4)	(88.6)	(5.6)	(7.9)	(86.5)	
화면	5	22	127	1	8	158	0	6	125	4	9	113	20.916***
화채	(3.3)	(14.3)	(82.5)	(0.6)	(4.8)	(94.6)	(0.0)	(4.6)	(95.4)	(3.2)	(7.1)	(89.7)	
진달래	14	18	122	3	6	158	2	6	123	6	9	11	24.570***
화채	(9.1)	(11.7)	(79.2)	(1.8)	(3.6)	(94.6)	(1.5)	(4.6)	(93.9)	(4.8)	(7.1)	(88.1)	
향애단	26	11	117	5	21	141	6	15	110	11	16	99	25.325***
향애단	(16.9)	(7.1)	(76.0)	(3.0)	(12.6)	(84.4)	(4.6)	(11.5)	(84.0)	(8.7)	(12.7)	(78.6)	
탕평채	6	12	136	6	13	148	1	16	114	6	20	100	10.527*
탕평채	(3.9)	(7.8)	(88.3)	(3.6)	(7.8)	(88.6)	(0.8)	(12.2)	(87.0)	(4.8)	(15.9)	(79.4)	
수면	4	4	146	6	7	154	1	8	122	5	8	113	6.025*
수면	(2.6)	(2.6)	(94.8)	(3.6)	(4.2)	(92.2)	(0.8)	(6.1)	(93.1)	(4.0)	(6.4)	(89.7)	
제피떡	38	13	103	17	15	135	8	33	90	17	20	89	41.364***
제피떡	(24.7)	(8.4)	(66.9)	(10.2)	(9.0)	(80.8)	(6.1)	(25.2)	(68.7)	(13.5)	(15.9)	(70.6)	
편(절편, 녹말편)	51	18	85	18	36	113	7	24	100	23	32	71	51.768***
편(절편, 녹말편)	(33.1)	(11.7)	(55.2)	(10.8)	(21.6)	(67.7)	(5.3)	(18.3)	(76.3)	(18.2)	(25.4)	(56.4)	

*p<.05 ***p<.001 N(%)

표 9. 초파일의 절식

분류 단위 요인	강릉			대전			전주			대구			x ²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트티떡	18	11	125	7	15	145	2	13	116	11	11	104	14.822*
트티떡	(11.7)	(7.1)	(81.2)	(4.2)	(9.0)	(86.8)	(1.5)	(9.9)	(88.6)	(8.7)	(8.7)	(82.5)	
콩볶음	16	28	110	11	30	126	3	34	94	28	33	65	39.556***
콩볶음	(10.4)	(18.2)	(71.4)	(6.6)	(18.0)	(75.5)	(2.3)	(26.0)	(71.8)	(22.2)	(26.2)	(51.6)	
미나리	53	30	71	21	49	97	10	54	67	42	51	33	68.457***
나물	(34.4)	(19.5)	(46.1)	(12.6)	(29.3)	(58.1)	(7.6)	(41.2)	(51.2)	(33.5)	(40.5)	(26.2)	

*p<.05 ***p<.001 N(%)

표 10. 단오절식

분류 단위 요인	강릉			대전			전주			대구			x ²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수리취떡	62	24	68	12	24	131	2	30	99	31	25	60	105.814***
(숙떡, 차륜병)	(40.3)	(15.6)	(44.2)	(7.2)	(14.4)	(78.4)	(1.5)	(22.9)	(75.6)	(24.6)	(27.8)	(47.6)	
제호탕	8	19	127	1	4	162	2	4	125	4	8	114	25.177***
제호탕	(5.2)	(12.3)	(82.5)	(0.6)	(2.4)	(97.0)	(1.5)	(3.1)	(95.4)	(3.2)	(16.4)	(90.5)	

*p<.001

행사는 거의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뚜렷하게 전승되어 오는 절식은 없으며 그시절 음식으로는 느티떡, 콩볶음, 미나리나물 등이 있다. 그 중 콩볶음, 미나리나물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차이를 보였으며, 미나리나물은 대구지역에서 꼭 해먹는다고와 가끔 해먹는다고를 합하여

74% 정도 해먹는다고 하였으며 타지역은 50% 미만이 해먹고 있었다.

6) 단오

5월 5일은 가장 벌이 강한날로 알았던 우리민족은 그날 죽을 뜯어서 떡을 만들었는데 그떡의 모양이 수

표 11. 유두절식

분류 단위 요인	강릉			대전			전주			대구			x ²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각종수단	3 (2.0)	13 (8.4)	138 (89.6)	5 (3.0)	10 (6.0)	152 (91.0)	0 (0.0)	6 (4.6)	125 (95.4)	9 (7.1)	12 (9.5)	105 (83.3)	15.904*
유두면	3 (2.0)	15 (9.7)	136 (88.3)	3 (1.8)	7 (4.2)	157 (94.0)	1 (0.8)	2 (1.5)	128 (97.7)	7 (5.6)	4 (3.2)	115 (91.3)	19.210***
밀전병	11 (7.1)	15 (9.7)	128 (83.1)	4 (2.4)	23 (13.8)	140 (83.8)	2 (1.5)	19 (14.5)	110 (84.0)	6 (4.8)	18 (14.3)	102 (81.0)	8.918
상화병	2 (1.3)	9 (5.8)	143 (92.9)	4 (2.4)	4 (2.4)	159 (95.2)	2 (1.5)	2 (1.5)	126 (96.9)	4 (3.2)	6 (4.8)	116 (92.1)	6.431
중편	10 (6.5)	18 (11.7)	126 (81.8)	9 (5.4)	19 (11.4)	139 (83.2)	3 (2.3)	10 (7.6)	118 (90.1)	7 (5.6)	16 (12.7)	103 (81.8)	5.258
전단	6 (3.9)	5 (3.3)	143 (92.9)	3 (1.8)	7 (4.2)	157 (94.0)	2 (1.5)	2 (1.5)	127 (97.0)	7 (5.6)	7 (5.6)	112 (88.9)	8.225
연병	2 (1.3)	5 (3.3)	147 (95.5)	1 (0.6)	7 (4.2)	159 (95.2)	1 (0.8)	2 (1.5)	128 (97.7)	6 (4.8)	8 (6.4)	112 (88.9)	13.510*
밀쌈	2 (1.3)	10 (6.5)	142 (92.2)	1 (0.6)	14 (8.4)	152 (91.0)	1 (0.8)	4 (3.1)	126 (96.2)	5 (4.0)	8 (6.4)	113 (90.0)	10.008
수교위	2 (1.2)	2 (1.3)	2150 (97.4)	3 (1.8)	6 (3.6)	158 (94.6)	1 (0.8)	3 (2.3)	127 (96.9)	9 (7.1)	5 (4.0)	112 (88.9)	16.095*

* $p < .05$ ** $p < .01$ N(%)

표 12. 삼복의 절식

분류 단위 요인	강릉			대전			전주			대구			x ²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개장국	19 (12.3)	59 (38.3)	76 (49.4)	28 (16.8)	36 (21.6)	103 (61.7)	8 (6.1)	45 (34.4)	78 (59.5)	12 (9.5)	26 (20.6)	88 (69.8)	25.072***
육개장국	26 (16.9)	73 (47.4)	55 (35.7)	29 (17.4)	105 (62.9)	33 (19.8)	9 (6.9)	70 (53.4)	52 (39.7)	23 (18.3)	55 (43.7)	48 (38.1)	25.836***
칼국수	59 (38.3)	62 (40.3)	33 (21.4)	27 (16.2)	100 (59.9)	40 (24.0)	8 (6.1)	69 (52.7)	54 (41.2)	45 (35.7)	57 (45.2)	24 (19.1)	64.413***
삼계탕	63 (40.9)	60 (39.0)	31 (20.1)	56 (33.5)	91 (54.5)	20 (12.0)	24 (18.3)	81 (61.8)	26 (19.9)	33 (26.2)	65 (51.6)	28 (22.2)	26.051***
호박지짐	37 (24.0)	42 (27.3)	75 (48.7)	21 (12.6)	94 (56.3)	52 (31.1)	14 (10.8)	62 (47.7)	54 (41.5)	35 (28.0)	48 (38.4)	42 (33.6)	40.598***
임자수탕	6 (3.9)	33 (21.4)	115 (74.7)	2 (1.2)	7 (4.2)	158 (94.6)	0 (0.0)	1 (0.8)	130 (99.2)	3 (2.4)	7 (5.6)	116 (92.1)	57.480***
복죽	7 (4.6)	40 (26.0)	107 (69.5)	6 (3.6)	22 (13.2)	139 (83.2)	5 (3.8)	25 (19.1)	101 (77.1)	11 (8.5)	35 (26.9)	84 (64.6)	20.662***
생치(쟁)	9 (5.8)	22 (14.3)	123 (79.9)	3 (1.8)	8 (4.8)	156 (93.4)	1 (0.7)	4 (3.1)	126 (96.2)	9 (7.1)	7 (5.6)	110 (87.3)	28.843***

*** $p < .001$ N(%)

레바퀴처럼 둥글게 만든데서 수리취라고도 하고 단오날을 수렛날(술의날)이라고도 한다.⁶⁾ 단오는 「삼국유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오래된 명절의 하나인데 신라시대부터 이 쪽떡의 풍속은 절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존중되어 왔다.⁷⁾ 본 조사에서는 강릉, 대구지역이 꼭 해먹는다가 40.3%, 24.6%로 타지역에 비해서 많이 해먹고 있었으며 제호탕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해먹지 않아서 사라져가는 음식임을 알 수 있었다.

7) 유두

음력 6월 15일을 유두일이라 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액을 씻기도 하고 이날 액막이로 모여 마시는 술자리를 유두연이라 했다. 이날은 모두들 만나서 회유하는 풍속이 있었으며,⁸⁾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풍속이다.⁷⁾

이날의 절식으로 증편, 밀전병, 각종수단 등이 있는데

오늘날 유두일의 풍습이 사라져 가면서 이날의 절식도 지역에 관계없이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8) 삼복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을 가리키며 더위를 이겨내는 음식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개장국, 삼계탕 등 여러가지 음식을 해먹기도 하고 팔죽으로서 癘疫을 예방하기도 한다.¹³⁾ 본 조사에서는 개장국, 육개장국, 칼국수, 삼계탕, 호박지짐을 많이 해먹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조상들의 이열치열법을 이용한 생활의 지혜로 생각된다.

9) 추석

추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 중의 하나로 우리왕 때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다.⁴⁾ 이날은 햇곡식으로 조상에게 풍년의 감사를 지내기 위하여 여러가지 절식을 만들어 제사지냈다. 이러한 제사의 풍습이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추석의 절식을 비교적 많이 해먹고

표 13. 추석의 절식

분류 단위 요인	강릉			대전			전주			대구			x ²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 지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 지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 지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 지않는다	
송편	146 (94.8)	3 (2.0)	5 (3.3)	145 (86.8)	19 (11.4)	3 (1.8)	101 (77.1)	28 (21.4)	2 (1.5)	110 (87.3)	15 (11.9)	1 (0.8)	28.782***
토란탕	65 (42.2)	36 (23.4)	53 (34.4)	27 (16.2)	68 (40.7)	72 (43.1)	49 (37.7)	64 (49.2)	17 (13.1)	32 (25.6)	30 (24.0)	63 (50.4)	70.214***
갓은나물	111 (72.1)	41 (26.6)	2 (1.3)	100 (59.9)	56 (33.5)	11 (6.6)	95 (72.5)	31 (23.7)	5 (3.8)	100 (79.4)	20 (15.9)	6 (4.8)	18.783***
화양적	36 (23.4)	42 (25.3)	76 (49.4)	12 (7.2)	51 (30.5)	104 (62.3)	11 (8.4)	32 (24.4)	88 (67.2)	18 (14.3)	22 (17.5)	86 (68.3)	29.347***
누름적	46 (29.9)	45 (29.2)	63 (40.9)	55 (32.9)	77 (46.1)	35 (21.0)	45 (34.4)	49 (37.4)	37 (28.2)	34 (27.0)	27 (21.4)	65 (51.6)	38.594***
닭젖	69 (944.8)	71 (946.1)	14 (9.1)	66 (39.5)	75 (44.9)	26 (15.6)	31 (23.7)	40 (30.5)	60 (45.8)	72 (57.1)	43 (34.1)	11 (8.7)	89.467***
배숙	7 (4.6)	45 (29.2)	102 (66.2)	16 (9.6)	41 (24.6)	110 (65.9)	12 (9.2)	21 (16.2)	97 (74.6)	12 (9.6)	29 (23.2)	84 (67.2)	9.588
밤초	8 (5.2)	35 (22.7)	111 (72.1)	19 (11.4)	24 (14.4)	124 (74.3)	7 (5.3)	20 (15.3)	104 (79.4)	18 (14.3)	30 (23.8)	78 (61.9)	17.814***
조란	4 (2.6)	18 (11.7)	132 (85.7)	8 (4.8)	27 (16.2)	132 (79.0)	4 (3.1)	15 (11.5)	112 (85.5)	6 (4.8)	16 (12.7)	104 (82.5)	3.781
갈비젖	52 (33.8)	66 (42.9)	36 (23.4)	35 (21.0)	101 (60.5)	31 (18.6)	29 (22.1)	51 (38.9)	51 (38.9)	40 (31.8)	50 (39.7)	36 (28.6)	29.738***
백화채	7 (4.6)	47 (30.5)	100 (64.9)	10 (6.0)	40 (24.0)	117 (70.1)	16 (12.2)	48 (36.6)	67 (51.2)	17 (13.5)	20 (15.9)	89 (70.6)	26.506***
시루떡	49 (31.8)	24 (15.6)	81 (52.6)	37 (22.2)	71 (42.5)	59 (35.3)	64 (49.5)	48 (36.6)	18 (13.9)	54 (43.2)	43 (34.4)	28 (22.4)	75.376***
밤단자	8 (5.2)	15 (9.7)	131 (85.1)	9 (5.4)	25 (15.0)	133 (79.6)	0 (7.6)	30 (22.9)	91 (69.5)	21 (6.7)	14 (11.1)	91 (72.2)	26.719***
토란단자	6 (3.9)	16 (10.4)	132 (85.7)	7 (4.2)	21 (12.6)	139 (83.2)	6 (4.6)	26 (19.9)	99 (75.6)	17 (13.5)	16 (12.7)	93 (73.8)	20.574**

p<.01 *p<.001 N(%)

있었다. 이날의 대표적인 절식의 승편, 갓은 나물은 전주지역이 45.8%, 시루떡은 강릉지역이 52.6%로 타 지역의 해먹고 있었으며 닭점은 전혀 해먹지 않는다가 지역에 비해 적게 해먹고 있었다. 배숙, 밤초, 조란,

표 14. 중앙절의 절식

분류 단위 요인	강릉			대전			전주			대구			x ²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국화전	10 (6.5)	8 (5.2)	136 (88.3)	2 (1.2)	15 (9.0)	150 (89.8)	3 (2.3)	2 (1.5)	126 (96.2)	4 (3.2)	15 (11.9)	107 (84.9)	20.121**
국화주	13 (8.4)	6 (3.9)	135 (87.7)	1 (0.6)	18 (10.8)	148 (88.6)	1 (0.8)	9 (6.9)	121 (92.4)	9 (7.1)	15 (11.9)	102 (81.0)	26.361***
화채	5 (8.3)	27 (17.5)	122 (79.2)	12 (7.2)	31 (18.6)	124 (74.3)	6 (4.6)	17 (13.1)	107 (82.3)	20 (16.0)	26 (20.8)	79 (63.2)	23.258***
밤단자	7 (4.6)	6 (3.9)	141 (91.6)	4 (2.4)	14 (8.4)	149 (89.2)	4 (3.1)	5 (3.8)	122 (93.1)	8 (6.4)	20 (15.9)	98 (77.8)	21.671**

p<.01 *p<.001 N(%)

표 15. 동지의 절식

분류 단위 요인	강릉			대전			전주			대구			x ²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팔죽	120 (77.9)	29 (18.8)	5 (3.3)	83 (49.7)	68 (40.7)	16 (9.6)	67 (51.2)	53 (40.5)	11 (8.4)	99 (78.6)	24 (19.1)	3 (2.4)	49.566***
누두죽	26 (16.9)	80 (52.0)	48 (31.2)	11 (6.6)	62 (37.1)	94 (56.3)	11 (8.5)	41 (31.5)	78 (60.0)	20 (15.9)	49 (38.9)	57 (45.2)	33.965**
수정과	43 (27.9)	83 (53.9)	28 (18.2)	25 (15.0)	94 (56.3)	48 (28.7)	26 (19.9)	57 (43.5)	48 (36.6)	26 (20.6)	56 (44.4)	44 (34.9)	20.563***
식혜	46 (29.9)	81 (52.6)	27 (17.5)	36 (21.6)	93 (55.7)	38 (22.8)	42 (32.1)	59 (45.0)	30 (22.9)	29 (23.0)	54 (42.9)	43 (34.1)	15.820*
동치미	54 (35.0)	60 (39.0)	40 (26.0)	91 (54.5)	59 (35.3)	17 (10.2)	71 (54.2)	52 (39.7)	8 (6.1)	62 (49.2)	52 (41.3)	12 (9.5)	34.871***

*p<.05 **p<.01 ***p<.001 N(%)

표 16. 午日の 절식

분류 단위 요인	강릉			대전			전주			대구			x ²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꼭 해먹는다	가끔 해먹는다	전혀해먹지 않는다	
신선로	12 (7.8)	28 (18.2)	114 (74.0)	2 (1.2)	24 (14.4)	141 (84.4)	0 (0.0)	12 (9.2)	119 (90.8)	5 (4.0)	16 (12.7)	105 (83.3)	23.043***
팔시루떡	17 (11.0)	32 (20.8)	105 (68.2)	15 (9.0)	48 (28.7)	104 (62.3)	7 (5.3)	27 (20.6)	97 (74.1)	35 (27.8)	33 (26.2)	58 (46.0)	46.080***
애탕	2 (1.3)	24 (15.6)	128 (83.1)	4 (2.4)	10 (6.0)	153 (91.6)	1 (0.8)	7 (5.3)	123 (93.9)	4 (3.2)	11 (8.7)	111 (88.1)	14.624*
변시만두	3 (2.0)	22 (14.3)	129 (83.8)	5 (3.0)	8 (4.8)	154 (92.2)	0 (0.0)	3 (2.3)	127 (97.7)	11 (8.8)	12 (9.6)	102 (81.6)	34.964***
강정	11 (7.1)	19 (12.3)	124 (80.5)	12 (7.2)	25 (15.0)	130 (77.8)	4 (3.1)	28 (21.4)	99 (75.6)	29 (23.0)	37 (29.4)	60 (47.6)	56.843***
연포탕	0 (0.0)	7 (4.6)	147 (95.5)	2 (1.2)	4 (2.4)	161 (96.4)	0 (0.0)	3 (2.3)	128 (97.7)	5 (4.0)	7 (5.6)	114 (90.5)	14.759*
난로회	5 (3.2)	13 (8.4)	136 (88.3)	3 (1.8)	5 (3.0)	159 (95.2)	2 (1.5)	4 (3.1)	125 (95.4)	5 (4.0)	7 (5.6)	114 (90.5)	8.797

*p<.05 ***p<.001 N(%)

표 17. 평상시 절식의 이용도

단위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단위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단위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요인				요인				요인			
떡	국	513 (88.8)	65 (11.2)	생치(평) 치 집	59 (102)	519 (89.8)	토란단자	80 (13.8)	498 (86.2)		
강	정류	293 (50.7)	285 (49.3)	시루떡	345 (59.7)	233 (40.3)	국화전	53 (9.2)	525 (90.8)		
만	두	476 (82.4)	102 (11.6)	오신채	39 (6.7)	539 (93.3)	진달래화전	53 (9.2)	525 (90.8)		
주	약	86 (14.9)	492 (85.1)	오곡밥	242 (41.9)	236 (58.1)	향애단	97 (16.8)	481 (83.2)		
인	절미	360 (62.3)	218 (37.7)	복쌈	357 (61.8)	221 (38.2)	탕평채	85 (14.7)	493 (85.3)		
식	혜	436 (75.4)	142 (24.6)	귀밝이술	192 (33.2)	386 (66.8)	수면	39 (6.7)	539 (93.8)		
수	정과	378 (65.4)	200 (34.6)	묵은나물	327 (56.6)	251 (43.4)	계피떡	146 (25.3)	432 (74.7)		
약	식	268 (46.4)	310 (53.6)	부름	261 (45.2)	317 (54.8)	편	222 (38.4)	356 (62.6)		
약	과	215 (37.2)	363 (62.8)	원소병	43 (7.4)	535 (92.6)	느티떡	45 (7.8)	533 (92.2)		
밤	초	98 (17.0)	480 (83.0)	유밀과	79 (13.7)	499 (86.3)	콩볶음	192 (32.2)	386 (66.8)		
전	유어	391 (67.6)	187 (32.4)	약식	238 (41.2)	340 (58.8)	미나리나물	378 (65.4)	200 (34.6)		
수	수전병	133 (23.0)	445 (77.0)	송편	304 (52.6)	274 (47.4)	수리취떡	151 (26.1)	427 (73.9)		
단	자류	147 (25.4)	431 (74.6)	콩볶음	186 (32.2)	392 (67.8)	제호탕	42 (7.3)	536 (92.7)		
편	육	346 (59.9)	232 (40.1)	진사술	154 (26.6)	424 (73.4)	각종수단	47 (8.1)	531 (91.9)		
빈	자떡	372 (64.4)	206 (35.6)	진달래화전	55 (9.5)	523 (90.5)	유두면	27 (4.7)	551 (95.3)		
중	편	103 (17.8)	475 (82.2)	화면	29 (5.0)	549 (95.0)	밀전병	118 (20.4)	460 (79.6)		
건	단	33 (5.7)	545 (94.3)	토란탕	314 (54.3)	264 (45.7)	상화병	25 (4.3)	553 (95.7)		
연	병	26 (4.5)	552 (95.5)	갓은나물	500 (86.5)	78 (13.5)	국화주	66 (11.4)	512 (88.6)		
밀	쌈	34 (5.9)	544 (94.1)	화양적	169 (29.2)	409 (70.8)	화채	199 (34.4)	379 (65.6)		
수	교위	21 (3.6)	557 (96.4)	누름적	299 (51.7)	279 (48.3)	신선로	145 (25.1)	433 (74.9)		
개	장국	210 (36.3)	368 (63.7)	닭찜	441 (76.3)	137 (23.7)	애탕	61 (10.6)	517 (89.4)		
육	개장국	403 (69.7)	175 (30.3)	배숙	161 (27.9)	417 (72.1)	변시만두	71 (12.3)	507 (87.7)		
칼	국수	488 (84.4)	90 (15.6)	밤초	90 (15.6)	488 (84.4)	연포탕	24 (4.2)	554 (95.8)		
삼	계탕	434 (75.1)	144 (24.9)	조란	80 (13.8)	498 (86.2)	난로회	44 (7.6)	534 (92.4)		
호	박지침	386 (66.8)	192 (33.2)	갈비찜	416 (72.0)	162 (28.0)	팔죽	356 (61.6)	222 (38.4)		
임	자수탕	68 (11.8)	510 (88.2)	배화채	194 (33.6)	384 (66.4)	녹두죽	219 (37.9)	359 (62.1)		
복	죽	117 (20.2)	461 (79.8)	밤단자	76 (13.1)	502 (86.9)	동치미	438 (75.8)	140 (24.2)		

N (%)

배화채, 발단자, 토란단자 등은 거의 해먹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중앙절

햇곡식의 추수가 늦은 지역에서는 중앙절에 햇곡식으로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풍습이 있다. 오늘날 중앙절의 시행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과 같이 본 조사에서도 중앙절의 절식은 지역간의 유의차가 나타났으나 시행율은 아주 낮았다.

11) 오일

시월중의 午日을 말날이라고 하여 말의 건강을 비는 뜻으로 팔시루떡을 만들어 고사를 지냈는데⁶⁾ 이러한 풍습은 거의 없어지고 팔시루떡은 대구지역에서 꼭 해먹는다. 27.8%, 타지역은 10% 이하였다. 또한 신선로, 변시만두, 강정도 지역차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거의 해먹지 않고 있었다.

12) 동지

荆楚歲時記에 의하면 共工氏가 재주없는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동짓달에 죽어 역질귀신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아들이 생전에 두려워했던 팔로 동짓날 팔죽을 쑤어 먹음으로서 그 귀신을 물리켰다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⁶⁾ 본 조사에서도 팔죽을 꼭 해먹는다는

가끔 해먹는다는를 합하여 조사대상자의 90% 이상이 해먹고 있었다. 그의 녹두죽, 수정과, 식혜, 동치미도 많이 해먹고 있었으며 지역간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5. 平常時 節食의 利用度

표 17은 평상시 절식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이다.

평상시 절식을 이용한다가 조사대상자의 50% 이상인 것으로는 떡국, 인절미, 식혜, 수정과, 전유어, 편육, 시루떡, 복쌈, 묵은나물, 송편, 미나리나물, 육개장국, 칼국수, 삼계탕, 호박지짐, 토란탕, 갓은 나물, 누름적, 닭찜, 갈비찜, 팔죽, 동치미 등으로 나타나 각 명절에 많이 해먹고 있는 음식을 평상시에도 많이 이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용하지 않는다가 조사대상자의 10% 이하인 것은 원소병, 진달래화전, 화면, 진달래화채, 수면, 제호탕, 각종 수단, 유두면, 상화병, 건단, 연병, 밀쌈, 수교위, 국화전, 연포탕, 난로회 등으로 명절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거의 이용하지 않아서 사라져가는 우리의 음식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표는 생략 하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절식의 이용도가 적은 이유

표 18. 절식을 알게된 경위

요인		분류						
		학교교육	시아머니	친정어머니	요리학원	요리책	TV 등 매스컴	기 타
지역	강릉	27 (7.5)	47 (30.5)	131 (85.1)	18 (11.7)	70 (45.5)	25 (16.2)	8 (5.2)
	대전	46 (27.5)	54 (32.2)	124 (74.3)	3 (1.8)	30 (18.0)	33 (19.8)	14 (8.4)
	전주	41 (31.3)	67 (51.2)	105 (80.2)	8 (6.1)	32 (24.4)	56 (42.8)	21 (16.0)
	대구	14 (11.1)	25 (19.8)	93 (73.8)	1 (3.3)	15 (11.9)	24 (19.1)	14 (11.1)
총 계		128 (22.2)	193 (33.4)	453 (78.4)	30 (5.2)	147 (25.4)	138 (23.9)	57 (9.9)
x ²		19.987***	29.621***	7.535	22.296***	49.694***	33.792***	10.013*
연령	29세 이하	36 (51.4)	12 (17.1)	55 (78.6)	9 (12.9)	27 (38.6)	24 (34.3)	2 (2.9)
	30~39	51 (25.9)	54 (27.4)	162 (82.2)	12 (6.1)	64 (32.5)	49 (24.9)	19 (9.6)
	40~49	32 (14.4)	80 (36.0)	166 (74.8)	7 (3.2)	43 (19.4)	47 (21.2)	30 (13.5)
	50세 이상	9 (10.1)	47 (52.8)	70 (78.7)	2 (2.3)	13 (14.6)	18 (20.2)	6 (6.7)
x ²		52.586***	27.263***	3.434	12.125**	21.346***	5.828	8.179

표 18. 계속

요인		분류							
		단위	학교교육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요리학원	요리책	TV 등 매스컴	기 타
학 력	무(한학)	0 (0.0)	10 (66.7)	13 (86.7)	0 (0.0)	1 (6.7)	0 (0.0)	2 (13.3)	
	국졸	5 (6.5)	33 (42.9)	54 (70.1)	0 (0.0)	4 (5.2)	18 (20.0)	13 (16.9)	
	중졸	15 (10.5)	44 (30.8)	117 (81.8)	4 (2.8)	19 (13.3)	27 (18.9)	24 (16.8)	
	고졸	55 (24.8)	72 (32.4)	177 (79.7)	10 (4.5)	74 (33.3)	64 (28.8)	13 (5.9)	
	대졸	53 (43.8)	34 (28.1)	92 (76.0)	16 (13.2)	49 (40.5)	31 (25.6)	5 (4.1)	
	χ^2		60.281***	12.627*	5.329	22.779***	52.323***	10.273*	20.657***
종 교	불교	27 (14.1)	59 (30.9)	150 (78.5)	7 (3.7)	35 (18.3)	27 (14.1)	17 (8.9)	
	기독교	50 (31.9)	59 (37.6)	125 (79.6)	6 (3.8)	50 (31.9)	54 (34.4)	13 (8.3)	
	천주교	17 (23.6)	21 (29.2)	56 (77.8)	3 (4.2)	19 (26.4)	16 (22.2)	6 (8.3)	
	무교(기타)	34 (21.5)	54 (34.2)	122 (77.2)	14 (8.7)	43 (27.2)	41 (30.0)	21 (13.3)	
	χ^2		15.803**	2.397	0.286	5.980	8.794*	20.009***	2.920
가 정 의 월 수 입	30만원이하	14 (21.2)	24 (36.4)	52 (78.8)	2 (3.0)	9 (13.6)	21 (31.8)	10 (15.2)	
	31만원~ 50만원	63 (23.3)	88 (32.5)	208 (76.8)	8 (3.0)	60 (22.1)	59 (21.8)	23 (8.5)	
	51만원~ 70만원	29 (18.4)	52 (32.9)	131 (82.9)	10 (6.3)	51 (32.3)	35 (22.2)	19 (12.0)	
	70만원이상	22 (26.5)	29 (34.9)	62 (74.7)	10 (12.1)	27 (32.5)	23 (27.7)	5 (6.0)	
	χ^2		2.457	0.471	3.008	11.734**	12.501***	3.881	4.861
	직 업	있다	52 (24.9)	68 (32.5)	161 (77.0)	17 (8.1)	43 (20.6)	52 (24.9)	27 (12.9)
없다		76 (20.6)	125 (33.9)	292 (79.1)	13 (3.5)	104 (28.2)	86 (23.3)	30 (8.1)	
χ^2			1.420	0.108	0.347	5.765*	4.075*	0.182	3.442
가 족 형 태	핵가족	111 (24.3)	125 (27.4)	374 (81.8)	25 (5.5)	124 (27.1)	114 (25.0)	47 (10.3)	
	확대가족	17 (14.1)	68 (56.2)	79 (65.3)	5 (4.1)	23 (19.0)	24 (19.8)	10 (8.3)	
	χ^2		5.818*	35.792***	15.458***	0.348	3.330	1.375	0.439
며 느 리 서 열	맡머느리	37 (17.0)	100 (45.9)	162 (74.3)	11 (5.1)	50 (22.9)	53 (24.3)	18 (8.3)	
	그 외	91 (25.3)	93 (25.8)	291 (80.8)	19 (5.3)	97 (26.9)	85 (23.6)	39 (10.8)	
	χ^2		5.432*	24.512***	3.407	0.015	1.151	0.037	1.014

* $p < .05$ ** $p < .01$ *** $p < .001$ N(%)

로는 「조리방법이 복잡해서」 30.6%, 「조리방법을 잘 몰라서」 29.7%, 「관심이 없어서」 12.6%, 「시간이 없어서」 21.4%로 나타났다. 이는 조¹⁵⁾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교육, 메스컴 등을 통해 보다 알기 쉽고 체계적인 절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 節食을 알게된 경위

표 18은 조사대상자가 절식을 알게된 경위에 있어 영향을 받았다고 느끼는 요인을 갯수에 제한없이 표시한 것으로 가장 높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요인은 친정어머니였으며, 다음은 시어머니, 요리책, T.V 등 메스컴, 학교교육, 기타, 요리학원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친정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요인이 유의차 ($p < .001$)를 보였고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교육, 요리책, 요리학원이 절식을 알게되는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p < .001$).

종교에 있어서는 학교교육($p < .01$), 요리책($p < .05$), TV 등 메스컴($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기독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나타난 반면 불교가 가장 영향을 적게 받았다고 하였다.

가정의 월수입에 있어서는 요리학원($p < .01$), 요리책($p < .001$)이 가정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가족형태에 있어서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매우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는데 확대가족에서는 시어머니가, 핵가족은 친정어머니가 영향이 더 크다고 하였다.

며느리서열에서는 만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p < .001$).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는 후세대의 식생활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전승은 가정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나,⁴⁾ 조⁵⁾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동거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식생활습관을 전승하기 때문일 것이다.

IV. 要約 및 結論

명절과 절식의 지역별 시행실태, 명절의 전승에 대한 의견, 평상시 절식의 이용도, 절식을 알게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문헌과 선행연구를 참고로 작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강릉, 대전, 전주, 대구지역의 주부 5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명절의 시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날, 대보름, 추석은 지역에 차이가 거의 없이 90% 이상 시행하고 있었다. 입춘, 중화절, 단오는 강릉이 타지역에 비해

시행율이 높게 나타났으며($p < .001$), 삼짇날, 유두일은 시행율은 낮으나 $p < .05$ 수준에서 지역간에 유의차가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요인과 명절의 시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파일은 연령이 높을수록 시행율이 높았고($p < .001$), 학력이 높을수록 시행율이 낮았다($p < .001$).

종교에 따른 시행실태는 입춘, 삼짇날, 초파일, 단오, 삼복, 동지가 $p < .001$ 수준에서 불교가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가족형태에 따른 시행실태는 입춘, 삼짇날($p < .01$), 대보름, 유두, 삼복, 중앙절, 오일, 동지가 유의차를($p < .001$) 보였는데 확대가족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2. 명절의 전승에 대한 의견은 설날, 대보름, 추석, 동지가 지역 및 일반적인 요인과는 관계없이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전승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요인에 있어서 초파일이 연령이 높을수록 전승해야 한다고 높게 나타났으며($p < .001$), 종교에 따른 전승의 의견은 입춘, 초파일, 삼복이 $p < .001$, 단오가 $p <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확대가족에서 전승해야한다고 높게 나타났다.

3. 절식의 시행에 관한 지역별 비교에서는 <설날의 떡국>, <정월대보름의 오곡밥, 묵은나물>, <추석의 송편, 갓은나물>, <동지의 팥죽>에 지역에 별 차이없이 대표적인 행사식으로 나타났으며 그외 <설날의 강정>, <대보름의 부름>, <삼복의 칼국수, 삼계탕>, <추석의 닭찜>, <동지의 수정과, 동치미> 등을 비교적 많이 해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뚜렷하게 지역차이를 보인 절식으로 는 <설날의 강정>이 대구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꼭 해먹는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설날의 만두>는 강릉지역이 다른지역보다 꼭 해먹는다가 월등히 높았다. <대보름의 귀밝이술, 묵은나물>, <단오의 수리취떡>이 강릉, 대구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꼭 해먹는다가 많이 높게 나타났으며 <추석의 닭찜>은 전주지역에서 <추석의 시루떡>은 강릉지역에서 다른지역에 비해서 낮은 시행율을 보였다.

4. 평상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절식으로는 떡국, 만두, 인절미, 식혜, 수정과, 편육, 전유어, 시루떡, 복쌈, 묵은나물, 송편, 미나리나물, 육개장국, 칼국수, 삼계탕, 호박지짐, 토란탕, 갓은나물, 누룽지, 닭찜, 갈비찜, 팔죽, 동치미 등이었다.

5. 절식을 알게된 경위에 있어서는 친정어머니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요인과는 관계없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다음이 시어머니, 요리책, T.V 등 메스컴, 학교교육, 기타, 요리학원의 순이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명절은 몇몇 대표적인 명절을 제외하고는 오늘날 현대문명에 밀려서 많이

되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절식풍속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룬 것으로 우리식생활에서도 영양적인면이 고려된 식생활의 과학화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서¹⁶⁾ 우리의 절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특정지역에서 시행율이 높은 음식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발전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식을 손님 접대시나 평소에 자주 이용함으로써 자녀에게 절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전통음식을 계승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의 주부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각종 주방기기 사용의 증가와 편리성을 고려한 조리법을 개발 보급하여 절식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조리법을 전수할 수 있도록 T.V나 신문, 잡지, 강습회 등 대중매체나 연구물 등을 이용하여 절식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우리의 미풍양속과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음식이 끊이지 않고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다.

參考文獻

1. 이회덕 外 : 한국전통음식의 문헌적 연구 및 향토음식 보고서, 17(1979).
2. 강석천 : 신한국지리, 새글사(1977).
3. 이광규, 이두현 : 한국가정생활사, 한국방송통신대학 (1987).
4. 이광규, 이두현, 장수근 : 한국민속학개설, 보성문화사 (1983).
5. 이석호 譯 : 경도잡지, 을유문화사(1977).
6. _____ 譯 : 열양세시기, 을유문화사(1977).
7. _____ 譯 : 동국세시기, 을유문화사(1977).
8. 장완섭 : 한국절식의 역사적 배경과 실증적 연구, 관동대학논문집 제 12 91~109(1984).
9. 황혜성 : 한국요리백과사전-조선요리고서편-, 도문대작, 삼중당, 495(1976).
10. 윤옥현 : 경주지역 전통음식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1979).
11. 세종대학교 부설, 전통음식연구소 : 한국전통음식 및 향토음식보고서(1979).
12. 윤서석 : 한국음식역사와 조리, 수학사(1980).
13. 강인희 : 한국식생활사, 삼영사(1983).
14. 나 철 : 절식음식에 관한 도시주부들의 의식조사연구, 계명대학교 비사논집, 217~231(1985).
15. 조연숙 : 전통음식에 관한 도시주부들의 의식조사연구-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식문화학회지, 제 3권 제 3호(1988).
16. 이기열 : 한국전통음식의 영양학적 조명, 한국영양학회지 제 19권 제 2호, 115~119(1986).
17. 임남순 : 우리나라 절식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제 1권 제 4호, 361~370(1986).
18. _____ : 의례음식에 대한 주부의 의식조사 연구-강원도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 20집, 247~264(1984).